

착한 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 최덕규 그림



주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솔직한 자기 감정 표현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관련 주제어	느낌말, 감정표현, 상황에 맞는 말, 표정, 몸짓, 감정 알아맞히기 놀이
교육 과정 연계	국어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작성	대구다사초등학교 성윤미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사탕이는 착한 아이다. 울지도 않고, 말썽꾸러기 동생에게 화도 내지 않는다. 물론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일도 없다. 그런 사탕이를 보고 어른들은 착하다고 칭찬한다. 더 나아가 사탕이네 엄마를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착한 사탕이의 얼굴엔 표정이 없다. 우는 모습도, 투정부리는 모습도, 화를 내는 모습조차도 사탕이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사탕이가 착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할 뿐이다. 사탕이는 생각하는. ‘자기는 착한 아이라고, 그래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동생을 야단쳐서도 안 된다고…….’ 그때 사탕이도 알지 못하는 사탕이의 속마음인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리곤 사탕이에게 ‘나’를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준다. 사탕이는 화날 때는 화를 내고, 울고 싶을 때는 울기도 하며, 동생과 다투고 싶었던 속마음을 하나씩 표현해나간다. 엄마의 눈에 비치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참모습을 갖춘 행복한 아이로 변해가는 사탕이의 화사한 웃음이 너무나 예쁘다.

■ 학습 목표

-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익혀 상황에 맞게 감정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다.
- 느낌말 익히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느낌말을 익힌다.
- 상황에 맞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말, 표정,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표현하는 연극을 꾸며 발표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이의 삶은 어떨까? 어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참모습은 어떠한지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탐색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착한 아이 사탕이』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무리)에서 관계 맺는 법을 익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저학년 학생들의 감정 단어는 ‘좋다’, ‘싫다’로 이분화되거나 ‘화난다’, ‘짜증나’ 등으로 자신의 기분의 미묘한 점을 표현하지 못한다. 느낌말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기분을 크게 이분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분을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착한 아이 사탕이』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기분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를 놀이로 가지고 가며, 역할극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 준비물

느낌말 카드, 얼굴 붙임 딱지, 말풍선 붙임 딱지, 얼굴 가면, 기타 소품 만들기 재료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p>내 기분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자신의 기분 표현하기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p>그림책 내용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지 살펴보기 - 사탕이의 표정과 그림자와의 관계 살펴보기 	
	<p>상황에 맞는 느낌 표현하기 및 경험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마음(그림자) 표현하기 - 속마음에 맞는 표정 그리기 - 경험에 맞는 얼굴 가면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1차시
읽은 후	<p>놀이를 통한 느낌말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맞는 느낌말 맞히기 놀이 - 표정과 몸짓으로 느낌말 표현하기 - 초성 느낌말 팀 대항 놀이 	2차시
	<p>미니 연극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선정하기 - 역할극 대본으로 만들기 -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2차시

읽기 전

1. 내 기분 표현하기

■ 지금 자신의 기분 표현하기

- 오늘 지금 자신의 기분은 어떠한지 말해보세요.
예: 좋아요./ 나빠요./ 신나요./ 재미있어요./ 짜증나요.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은 책은 『착한 아이 사탕이』입니다.
- 표지의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사탕이요.
- 표지를 살펴보고 발견한 점이 있나요?
예: 아이가 서 있는 모습과 그림자의 자세가 달라요. 그림자가 실제 아이 크기보다 너무 가늘어요.
- 이 책은 강밀아 글, 최덕규 그림의 작품이며, 출판사 글로연에서 나왔습니다.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앞 면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예: 줄에 사진이 걸려있어요. 사진 속에 사탕이는 온전히 나와있지 않고 신체 일부분만 나와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회색 빛으로 보여요. 회색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탕이를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착하다, 동생을 잘 돌본다,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탕이의 모습은 온전히 나오지 않고, 다리나 신체 일부분만 나와요.
사탕이 표정이 결코 즐겁지 않아 보여요.

■ 그림책 따라 읽어가기

- 사탕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예: 로봇 같아요. 그림자와 표정이 달라요. 그림자는 울어요. 표정은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 사탕이의 상황과 그림자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예: 사탕이는 AI로봇 같이 눈뜨고 있고, 그림자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겉모습 표정과 그림자는 다르게 나타나요.
그림자는 속마음 같아요. 그림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 사탕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동생이 머리 당겨서 짜증이 나는 일요. 치과 치료하며 무서워 하는 일요. 뱀 장난감으로 놀리는 친구로 인해 무서워하고 있어요. 넘어져서 무척 아팠던 일요.. 동생이 사탕이가 좋아하는 인형 머리를 잘랐어요. 동생이 사탕이 스케치북 그림

숙제에 낙서하고 도화지 찢었어요. 등

- 사탕이는 어떤 아이 같아요?

예: 속마음과 겉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아이, 잘 참는 아이, 속마음과 겉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 잠들어 있는 사탕이를 깨우는 이 인물(분홍색)은 누구일까요?

예: 귀신이에요. 엄마요. 그림자요.

- 사탕이는 왜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만 살았을까요?

예: 사람들이 사탕이를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감정을 숨기라고 말해요. 착하다거나 울지 않는다고 말해요.

- 제일 공감이 가는 장면이나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예: 동생이 이러면 완전히 화나서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림자가 화내도 된다고 할 때 완전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에 친구와 더 놀고 싶은가 봐요.

■ 뒷면지 살펴보기

- 뒷면지의 사탕이는 어떤 것 같아요?

예: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인라인 타면서 넘어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메뚜기도 잡았어요. 사탕이가 자세하게 나와요.

2. 상황에 맞는 느낌 표현하기 및 경험 나누기

■ 속마음 표현하기와 그에 맞는 표정 그리기

- 그림책 속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말풍선에 쓰고, 그에 맞는 얼굴 표정을 그려봅시다.

	
<p>상황에 맞는 표정 그리기 / 속마음 쓰기</p>	<p>강아지를 무서워해서 놀란 표정과 마음</p>
	
<p>장난쳐서 화난 표정과 마음</p>	<p>넘어져서 아파서 울고 있는 마음</p>

사진 출처: 참고 작품은 교안 작성자의 예시안 작품

Tip. 얼굴 모양 붙임 딱지와 말풍선 모양 붙임 딱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꼭 얼굴 모양과 말풍선 모양이 없어도 포스트잇(붙임 딱지)에 그려서 붙여도 상관이 없다. 붙임 딱지가 있을 시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경험에 맞는 얼굴 가면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 최근에 있었던 속상했던 일을 떠올려보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 친구들과 방과 후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이와 △△와 놀고 있다가 같이 문구점에 가서 뭔가를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가 가방을 저쪽 벤치에 뒀서 달리기가 빠른 내가 다른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 친구 가방을 가지러 가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친구 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에 친구들 둘이 나를 버리고 저희들끼리만 문구점에 갔어요 그때 너무 화나고 내가 친구 가방을 가지러 가준 마음을 몰라줬던 친구가 너무 미웠어요. 다시는 놀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집에 왔더니 문자가 와있는데, 나만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문구점에 가 놓고는 나보고 왜? 오지 않았냐고 문자를 보내서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Tip.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분장을 하거나 변장을 했을 때 더욱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경험 속 핵심 표정을 그려 얼굴 가면을 만들고 가면 뒤에서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 나누고 경청해 준다. 누군가가 자신의 속상했던 일의 경청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이야기 후 나의 이야기를 친구가 그대로 반영해주기 한다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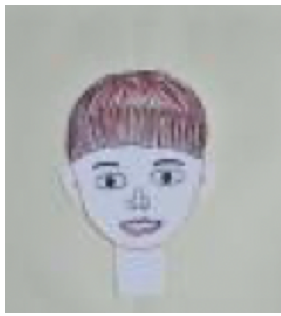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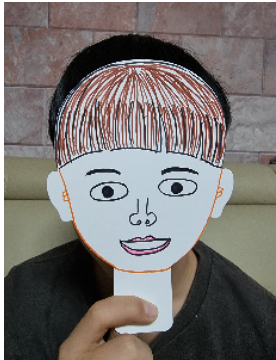
	
<p>얼굴 가면 만들기</p>	<p>가면으로 가리고 속상했던 이야기 나누기</p>

사진 출처: 참고 작품은 교안 작성자의 예시안 작품

읽은 후

1. 놀이를 통한 느낌말 익히기

■ 상황에 맞는 느낌말 맞히기 놀이

- 4인 1모듬으로 구성된 친구끼리 모여앉는다.
- 느낌말 카드 문치를 친구들에게 보이게 들고 앉는다. 자신은 어떤 느낌말이 카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의 가슴 앞쪽에서 보여주며 이 느낌말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예시안을 돌아가며 말해주나.
- 친구들이 들려주는 상황에 맞는 느낌말을 말한다.

- 느낌말을 맞힌 친구는 카드 뭉치를 옆 친구에게 주고 옆 친구는 맨 뒤의 카드를 앞을 옮기든 아무 카드를 앞쪽으로 옮기며 다른 느낌말을 보여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상황을 돌아가며 설명하고 카드를 들고 있는 친구는 느낌말을 맞히는 놀이이다.
- 놀이 후 놀이 소감을 나눈다.
예: 같은 느낌말인데, 다 다른 상황을 설명해서 느낌말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됨을 알았다.
내가 잘 쓰지 않는 느낌말을 설명하려니 상황 설명이 어려웠다.

Tip. 느낌말 카드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나온 것도 많고, 감정 단어 배우는 단원에서 느낌말 카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다.

■ 표정과 몸짓으로 느낌말 표현하기

- 느낌말 카드를 하나 고른다.
- 느낌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몸짓과 표정으로 느낌말을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이 느낌말을 맞힌다.
- 순서대로 돌아가며 몸으로 느낌말 표현하기를 해본다.

■ 초성 느낌말 모둠 대항 놀이

- 모둠별로 느낌말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준다.
- 선생님이 제시하는 초성으로 시작하는 느낌말을 모둠별로 협의해서 적는다.
- 모둠별로 돌아가며 초성으로 시작하는 느낌말을 모둠별로 하나씩 부르고, 같은 느낌말을 적은 모듬은 지워나간다.
- 끝까지 느낌말이 남은 모듬은 느낌말 부자 모듬이 된다.

1	고맙다.
2	감사하다.
3	감격스럽다.
4	감동이다.
5	갑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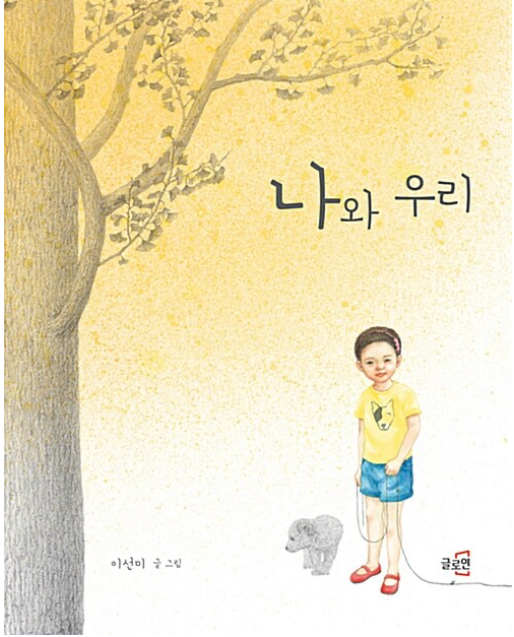
< 기억으로 시작하는 느낌말 >

Tip. 같은 느낌말이 중복되어 부르지 않도록 칠판에 느낌말을 교사가 적어준다. 같은 초성으로 시작하는 느낌말을 복습할 수도 있어서 기록해 두고 확인하고 익히는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다. 느낌말과 생각의 말을 때로는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시하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생각의 말이다. 느낌말은 감정, 정서, 감각을 나타내는 말이다. 학생들이 생각을 말을 적었다면 느낌말로 고쳐준다.

2. 미니 연극 하기

■ 그림책으로 연극 대본 쓰기

- 함께 읽었던 그림책을 하나 선택해 연극 대사를 써봅시다.

	<p>**등장인물 : 분희, 영아, 현옥, 은섭, 주희</p> <p>**소품: 고무줄, 머리띠</p> <p>분희: 고무줄놀이하고 있네. 나도 놀고 같이 하고 싶다.</p> <p>영아: 어? 저기 머리 짧은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네</p> <p>현옥: 파란 대문집에 지난 주에 이사 온 아이 같은데, 우리하고 같은 나이일까?</p> <p>은섭: 재도 고무줄 놀이하고 싶은가봐? 같이 놀자고 할까?</p> <p>주희: 그럼 짝이 맞지 않는데, 어떡하지?</p> <p>현옥: 저 친구는 깎두기 시켜주면 되지.</p> <p>영아: 애 너 몇 살이야? 이름은 뭐야? 우리하고 같이 고무줄놀이 할래?</p> <p>분희: 그래도 돼?</p>
---	---

-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서 대사를 적어보고 대사 연습을 해본다.
- 연극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소품을 만들거나 준비해도 좋다.
-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게 말, 표정, 몸짓에 주의하며 연극으로 표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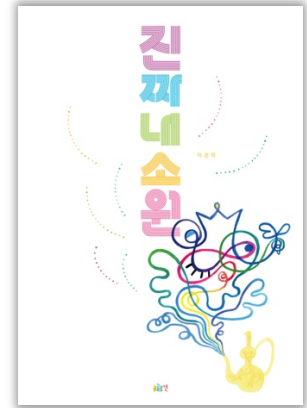
Tip. 저학년 학생의 경우 대본의 구성 요소를 잘 알지 못한다. 그림책 속 이야기에 인물에게 대사 만들어 보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사를 적게 하고 그것을 연극으로 표현하게 한다. 역할극이라고 생각하고 설정된 역할을 입어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해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대사글에 맞는 표정과 몸짓, 말투를 표현해 보는 것을 목표 수업을 진행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그림)

아이가 호리병을 문지르자,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가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첫 번째 소원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등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다. 소원의 주인이 엄마였다. 두 번째 소원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새 차를 사게 된다. 그 또한 아이의 진짜 소원은 아니었다. 지니는 진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 잘 알아야만 진짜 네 소원을 알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좋아하는 꽃, 색깔, 음악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세 번째 소원은 일 년 뒤에 말하겠다고 한다. 일 년이 지난 뒤 아이는 세 번째 소원을 말하려 지니를 부르는데... 과연 아이의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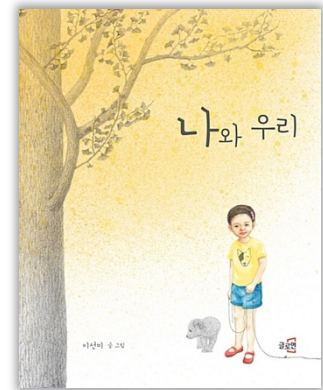
#소원 #진짜내속마음 #자기이해 #내가원하는것



나와 우리 이선미(글·그림)

따돌림, 편 가르기 같은 친구관계로 상처 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넓은 눈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책. 앞과 뒤에서 시작되는 두 이야기가 가운데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독특한 구성의 그림책이다. 마음이 가시에 콕 찔린 듯한 아픔을 겪은 '나'와 새로 이사 온 아이와 놀 궁리에 여념 없었던 '우리'의 작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이 각각의 입장에서 따뜻한 그림으로 펼쳐진다.

#인물의마음 #친구 #경험나누기 #느낌



뱀파이어 소녀 반다 사우바나 지 메네제스(글·그림)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뱀파이어 소녀 반다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으스스한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는 뱀파이어 이야기를 아름답게 빚어낸 작가는 그림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와 유머를 동시에 안겨준다. 작가의 넘치는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뱀파이어의 생활환경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것이다. 특히, 발레학원에서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반다와 친구들이 춤을 추는 장면은 가히 엽기적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웃음을 짓게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불가능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역시 '사랑'임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자기이해 #참모습 #참사랑 #참자아

